

“주담대 있는 고령자도 OK”... 주택연금 가입자 ‘쑥쑥’

연령 등 가입기준 완화 후 신청 ↑
주택연금 일시인출 70%→90%
농협·축협서 가입으로 점점 확대

‘내 집’이 있는 사람이라면 노후 걱정을 덜어줄 현실적 대안으로 주택연금이 주목받고 있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 보증 아래 은행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역모기지 상품이다. 쉽게 말해 집을 담보로 맡기고 생활자금을 받는 제도다.

최근 정부가 가입 대상 주택의 가격 상한을 올리고 가입 연령을 내리는 등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면서 주택연금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주금공도 주택연금 일시인출한도를 확대하고 주택연금 가입을 시중은행에서 전국 단위 농·축협으로 늘리는 등 노후 준비 문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월 주금공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1만237명으로 해마다 급격하게 늘고 있다. 누적 가입자 수를 보면 2008년 1210명에서 2012년 1만

주택담보대출 상환시 주택연금 일시인출 최대한도 비교

연령	기존(최대 70% 인출)		변경(최대 90% 인출)	
	인출한도	월지급금	인출한도	월지급금
60세	80,640	188	103,680	63
70세	110,250	278	141,750	93
80세	147,630	439	189,810	146

주택가격 3억원, 2019년 2월기준(2019년 3월4일부터 월지급금 평균 1.5% 감소), 사진은 서울 잠실 주공 5단지. (자료=주택금융공사·사진=연합뉴스)



2299명으로 10배 넘게 증가했다. 이후 2014년 2만2634명, 2017년 4만9815명으로 2배씩 늘었다. 지난해에는 6만52명으로 2007년 첫 출시 이후 6만명을 넘겼다. 지난해 말 기준 가입자들의 평균 나이는 72세로, 평균 2억9200만원 상당의 주택을 담보로 매달 100만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올해 가입 대상 주택의 가격 상한을 올리고 가입

연령을 낮추는 등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나서면서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의 가격 상한선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시가 13억~15억원 상당)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현재 60세 이상인 가입 연령도 50대 중후반으로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연령 기준

은 올 상반기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 때 결정될 예정이다.

다만 연금 지급액 상한선은 그대로 유지된다.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이라도 월 지급액은 시가 9억원에 맞춰 산정된다.

금융위는 가입 주택의 임대(전세·반전세)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 동의가 있어야 배우자가 연금을 이어받을 수 있지만 규정을 바꿔 자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택연금은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금융원리를 유지하면서도 고령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금융과 복지의 성격을 동시에 띠고 있는 사업”이라며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해 향후 고령화 시대를 맞아 소비 주체로 떠오를 어르신들의 소비지원은 물론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금공은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령자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 일시인

출한도를 70%에서 90%로 확대했다.

목돈으로 받을 수 있는 일시인출이 지금까지 대출한도(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이 100세까지 받는 연금 수령액의 현재가치)의 70%까지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90%까지 늘어난 것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택연금 가입 시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일시에 찾아쓸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 기존 대출금이 많아 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층도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더 많은 고령층이 본인의 주택에서 생활하면서 대출이자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밖에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이용 가능했던 주택연금 가입이 전국 단위 농·축협에서도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국민, 우리, 신한, 하나, 기업, 농협은행 등 시중은행과 전북,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제주은행 등 지방은행, 교보생명, 흥국생명 외에 고령층들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 단위농협 등에서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문창용 캠프 사장(앞줄 왼쪽에서 일곱번째)이 3일 오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개최된 ‘한국자산관리공사 제57회 창립기념식’에서 임직원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캠코

문창용 사장 “국민이 체감토록 혁신 성과”

캠코 창립 57주년

문창용 캠프 사장이 창립 57주년을 맞아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 성과를 창출할 것을 당부했다.

문창용 사장은 3일 오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57주년 창립기념식에서 “지난 57년간 가계·기업·공공을 축으로 각 경제주체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의 정체성과 위상을 정립하는 한 길을 걸어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공적 자산관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사람 중심의 동반성장 실현, 국민과 함께하는 투명 경영시스템 구현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가

치 혁신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투자 확대와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 국민과의 다양한 소통, 국민이 원하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 구현 동참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문 사장은 “공공기관으로서 주어진 공적 책무를 일선에서 구체화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혁신”이라며 “기본에 충실히 하고자 하는 작은 노력이 모여서 혁신이 되는 것이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조직 문화로 정착되기 위해 임직원 모두가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김희주 기자

‘스마트축산’ 생산성 UP... 농가 25% 보급

(2022년까지)

농진청 축사환경·관리 정밀 제어
젖소 평균 도태율 5%서 1.5%로 ↓

농촌진흥청은 ‘스마트축산’ 모델 개발로 빅데이터 기반의 정밀 축산 구현에 주력하면서 농가의 편의성과 생산성 향상 효과를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ICT(정보통신기술) 장치 보급이 확산되고 있지만, 개별 장치의 통합 관리 시스템이 취약해 서로 다른 프로그램이 사용해야 하는 불편한 때문에 종합적인 데이터 관리가 되지 않아 빅데이터 기반의 정밀 사양 구현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스마트축산 모델은 통합제어기로 각 ICT 장치의 데이터를 통합, 클라우드 서버와 연동해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든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사양과 축사 환경, 건강 관리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

이를 활용하면 사양 정보, 환경 정보 등 농장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어 빅데이터 기반의 가축 정밀 사양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송아지 로봇포유기’가 놓인 스마트 축사 모습. /농진청

전망이다.

농진청은 지금까지 개발한 스마트축산 모델을 농장에 설치하고 효과를 분석한 결과, 편의성뿐 아니라 생산성 향상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우 스마트축산 모델 농장의 경우, 노동력이 줄면서 사육 마릿수가 120마리에서 150마리로 30마리 늘었다. 개체별 정밀 사양 관리로 암소의 평균 공태일(비임신 기간)이 60일에서 45일로 15일 줄고, 송아지 폐사율도 10%에서 절반으로 낮아졌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젖소 스마트축산 모델 농장은 정밀 개체 관리로 한 마리당 40kg이던 하루 평균 착유량이 43kg으로 늘고, 5%였던 평균 도태율도 1.5%로 낮아졌다. 평균 공태일은 220일에서 150일로 줄었다.

한편, 정부는 노동력 부담을 덜고 생산성은 높이기 위해 스마트농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 개발(R&D) 투자를 확대해 2022년까지 축산 전업농가의 25% 수준인 5750곳에 ICT 장치를 보급할 계획이다.

관광공사 日 후쿠오카서 韓 관광 매력 알린다

7~9일 ‘한국문화관광대전’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7~9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신한류, 여성, 한국여행을 테마로 한 현장 체험형 소비자행사 ‘2019 한국문화관광대전’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공사는 “최근 젊은층, 특히 여성층을 중심으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일본인 방한여행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고 전했다.

7일에는 후쿠오카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JR하카타역 광장에서 ‘신한류 DAY’를 개최한다. 8일에는 문화관광대전의 하이라이트인 ‘신한류 스페셜 나이트(Special Night)’ 행사가 열린다. 가수 성시경, 배우 이재훈 등이 콘서트와 토크쇼를 진행한다. /김민서 기자 min0812@

BGF리테일-BC카드 ‘유통+금융’ 혁신마케팅 맞손

앱 연계 강화 등 고객접점 확대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BC카드와 손 잡고 유통, 금융을 융합한 마케팅 혁신에 나선다. 이를 통해 고객 접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BGF리테일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BC카드 사옥에서 BC카드와 업무 제휴를 맺었다. 양사는 각 사의 비즈니스 강점을 활용해 ▲상품 및 지역 마케팅 진

개 ▲모바일 어플 연계 강화 ▲QR결제 인프라 구축 및 프로모션 ▲Card Cycle 시스템 도입 ▲스마트플랫폼 제휴 및 신사업 발굴 등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상품 마케팅은 정부의 복지 정책인 물품바우처 사업을 기반으로 해 공익적 의미를 담았다. 관련 사업 및 프로모션은 추후 CU의 그린 POS와 BC카드의 그린카드를 활용해 정부의 친환경 사업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김민서 기자



지난 2일 열린 BGF리테일과 BC카드의 고객접점 확대를 위한 마케팅 혁신 업무제휴식에서 서유승 BGF리테일 영업·개발부문장(오른쪽), BC카드 김진철 마케팅부문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BGF리테일